

강의안 1 :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이야기, 설화>

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옛이야기

1. 설화說話

- 전승 집단 내에서 구전口傳되어 내려오는 상상으로 꾸며낸 허구적 이야기.
- 전승 과정에서 구연 상황, 구연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내용의 변화가 일어남(설화의 가변성 可變性, 구연口演의 개방성)
- ☞ 각편各篇 : 같은 주인공과 서사구조를 가졌지만 내용상 차이가 조금씩 나는 개별 이야기.
- 구비문학 중에서 문자로 정착할 가능성이 가장 큼(조선후기의 ‘야담野談’).

2. 설화의 분류(Burne, 1914)

항 목	신화神話	전설傳說	민담民譚
①전승자의 태도	신성성 인식	진실성 믿음	신성성·진실성 보다 흥미 본위
②시간과 장소*	태초의 신성한 장소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	일정한 것 없음(옛적에)
③증 거 물	매우 포괄적	특정의 개별적 증거물	증거물이 없거나 아주 포괄적
④주 인 공*	신 중심	인간중심	일상적 인간이나 동물
⑤주인공의 행위	신적 능력 발휘	예기치 못한 사태에 좌절	인간적인 행동. 초월자의 도움으로 운명 개척
⑥결말의 특징	숭고적·종교적	비극적·운명론적	희극적·낙천적
⑦전 승 범 위	민족적·국가적	특정 지역	범세계적, 범민족적

② 신화의 신성성과 상징象徵

1. 신화의 본질적 속성

- 신들에 의해서 이야기 되고, 신들에 의해서 전해진 모든 것(우주·신의 탄생, 인간·자연물의 창조, 하늘·땅의 분리, 불·물의 원천, 생사의 기원 등 자연·사회 현상의 기원 관련 이야기)
- 신성한 존재의 근본을 설명하는 이야기. *제주에서는 ‘신화’ 대신 ‘본풀이’라 부름.
- 신화는 특정 전승 집단의 구성원에게 신성하다고 믿어지는 이야기.

2. 신화의 분류

1) 건국신화

- 국가적인 범위에서 신성시되는 국가 창건의 시조나 관련 신격에 대한 신화
 - <단군신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수로신화>
- 북방계 신화 : 천신天神과 지신地神, 천신과 수신水神의 결혼(합)-시조 탄생-건국
- 남방계 신화 : 시조의 하강(대체로 알의 형태)-건국-시조의 결혼

2) 시조신화

- 특정 성씨의 내에서 신성성이 인정되는 시조의 이야기. 건국신화와 긴밀하게 연결.
- 신라 건국주 박혁거세(경주 박씨), 가야 건국주 수로(김해 김씨), <수로신화>의 허황옥(김해 허씨), <석탈해신화>(월성 석씨), <김알지신화>(경주 김씨), <제주도 삼성신화>(제주 고·부·양씨)

- 씨족 시조신화 : 이천 서씨, 창녕 조씨, 문화 류씨, 남평 문씨.

◎ 제주도 삼성三姓신화

고을라·양을나·부을라 세 신인神人이 탐라현 모흥혈에서 솟아나 사냥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바닷가에 떠내려온 나무함에서 동해 벽랑국碧浪國에서 왔다는 세 처녀와 송아지·망아지·오곡의 씨를 발견하고, 세 처녀와 더불어 각각 결혼한 후 땅을 분할하여 목축과 농경생활을 하면서 살았다. 그후로 후손이 번창하였다.

◎ 남평문씨 족보

호남 남평군의 동쪽에 큰 못이 있었다. 못 가장자리에 바위가 우뚝 솟아 천길이나 되었는데 임금이 하루는 그 아래를 지나니 오색구름이 바위위에 몰려 있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것을 듣고 임금이 마음으로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곧 사다리를 만들어 그곳을 살피니 돌함이 있어 철사로써 그것을 매어 드리운 다음 그것을 열어 보니 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었다. 살갗이 흰눈과 같고 용모가 기이하여 드디어 거두어 그를 길렀다. 나이가 5세가 되자 문사가 자연 통달하고 무예가 뛰어나며 총명하고 영리하여 사물의 이치에 통달하였다. 고로 ‘문’으로써 성을 삼고 ‘다성多省’으로서 이름을 삼고, 명달을 자로 삼으니 당시의 사람들이 그를 ‘문다성文多省’이라 하였다.

3) 부락신화

- 특정 마을에 한정되어 전승된 신화(촌락신화·마을신화). 마을의 수호신이나 마을을 처음 연 시조를 신격화하여 숭상하는 이야기로 마을의 제의(동제·별신굿·도당굿)와 함께 전승.
- 마을을 연 시조신은 ‘골매이 ○씨할배’·‘골매이 ○씨할매’ 등으로 부름.

◎ 죽령산신 ‘다자구할매신’

옛날 죽령에 도적이 많아 나라에서 근심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관군과 모의하여 ‘다자구’, ‘더자구’라는 이름의 아들을 찾다는 구실로 도적들 속에 들어가 도적들이 잠들지 않으면 ‘더자구야!’하고 외치고, 도적들이 모두 잠들었으면 ‘다자구야!’라고 외쳐 도적을 모두 잡을 수 있게 되었다.



4) 종교신화(무속신화)

- 특정 종교의 범위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무속신화가 대표적. 무속신화는 무당들이 모시는 신들의 내력을 읊은 <당금애기>나 <바리데기> 등의 서사무가가 이에 해당.

3. 신성성과 상징 : <단군신화>를 중심으로

- 신화는 일상적 현실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신성한 이야기이기에 신화의 언어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상징일 수밖에 없음(11쪽 인용문 참조)
- 웅녀는 곰을 토tem으로 삼는 원주민, 환웅은 천신을 숭배하는 이주세력으로 단군의 탄생은 이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집단이 성립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신화.
- 환웅이 환인에게서 받은 천부인天符印(제사장의 신성 징표), 풍백·운사·우사(농경 관련 인물) ☞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제정祭政일치 사회이자 농경국가임을 보여 줌.
- 환웅과 웅녀의 결합(천부지모天父地母의 상징), 곰의 인간화 과정(굴 속에서 음식 및 행위 금기 지키기. 새 사회로 통합하기 위해 이전 사회로부터의 분리의식인 성인식과 흡사).

4. 신화의 의의

- 신화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고대인의 인식과 사유체계는 물론 민족이 지닌 심성의 원형 또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한 문화적 원형.

③ 전설의 진실성과 증거물

1. 전설의 본질적 속성

- 전설은 인간 행위와 그것을 둘러싼 사회의 제반 현상(자연물·인공물·인물·풍속·신앙 등 인간·사물·특정 현상이 형성된 사연이 총망라된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
- 증거물을 근거로 한 진실성을 중요하게 다룸. 전설의 필수요소인 증거물만 제시되면 치밀한 구성을 갖춘 허구적 서사나 문학성을 갖추지 못한 단순 설명도 전설에 포함.

2. 전설의 분류

1) 전승 범위에 따라

- ①지역적 전설 :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징, 지명의 유래, 지역에 전하는 특정 관습을 다룸.
- ②이주적 전설(광포廣布전설) : 비슷한 내용의 전설이 각 지역의 지형물과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견됨. <장자뭇>, <아기장수>, <쌀 나오는 구멍>

2) 발생 목적에 따라

- ①설명적 전설 : 자기를 둘러싼 자연이나 사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 (지형·지명 관련 유래담)
- ②역사적 전설 : 역사적 사실이나 역사적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지역 인물전설)
- ③신앙적 전설 : 민간신앙에 기초한 것으로 속신俗信이나 금기禁忌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

3) 증거물의 성격에 따라

- ①인물전설 :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열녀·효자·영웅·장군·도승 등)
- ②사물전설 : 산·강·고개 등 자연물, 사찰이나 비석과 같은 인공 축조물 관련 이야기
- ③풍속·신앙전설 : 특정 풍속의 유래를 설명하거나 종교적인 수행담·영험담 이야기 (<‘한식寒食’의 유래>, <‘고시래(고수레)’의 유래>)

◎ <견훤과 삼태사>

삼태사는 견훤이 못에서 흠탕물에 목욕한 뒤 용기백배하여 싸움에 임하는 걸 알고 못에 소금을 많이 뿌려두었다. 견훤이 평소와 같이 목욕한 뒤 전쟁터에 나섰지만 힘이 많이 약화되어 결국 삼태사에게 멸망 당하고 말았다.

3. 전설의 진실성과 역사의 관계

- 전설은 ‘역사의 낭만적 기술記述’. 전설은 구체적인 시간·장소·증거물을 갖추어 역사와 관련성이 짙지만 문학적 상상력이 더해진 허구이기에 역사와 일치하지는 않음. 다만 정사正史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층위의 역사인식을 보여주어 역사를 보완하는 기능.
- 증거물이 전설이 가진 허구적 서사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견제. 전승자의 상상력을 증거물로써 제한하기에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전개.

4. 전설의 증거물과 비극성

- 전설은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하기에 필연적으로 전승자의 허구적인 상상력과 현실 공간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허구적 서사와 전승자가 딛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

갈등이 생기고, 전설의 비극성이 발생. 전설의 주인공은 현실과 허구적 서사가 공존하는 이
율배반적 속성 때문에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됨.

- <아기장수> 이야기 : 아기장수가 숨어서 군대를 양성했다고 전해지는 ‘장군바위’나 아기장
수의 죽음을 알게 된 용마가 스스로 빠져 죽었다는 연못(용소龍沼)가 증거물로 제시됨.
다양한 변이형이 있지만 ‘①비범한 아기의 출생, ②부모에 의한 아기장수의 죽음, ③용마의
죽음’이라는 기본 서사는 공통. 더 나은 삶을 위해 새 영웅이 출현하길 바라는 강렬한
소망과 새 영웅이 나타나도 현실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민중의 현실경험이 비극으로 연결.

5. 전설의 의의

-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 인식과 전설의 주인공을 통해 표출된 전승 집단의 이
상이 부딪히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

Ⅳ 민담의 흥미성과 보편성

1. 민담의 본질적 속성

- 흥미 위주로 민간에서 전승되는 옛날이야기로 신화·전설에 비해 구연자의 능력이 중요.
- 신화나 전설이 집단성을 강조하는 이야기라면 민담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비현실적·초월적 세계는 물론 그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도 다룸.
- 신화·전설과 달리 과거 어디에서든 몇 번이나 일어났을 법한 전형적인 사건을 다룸

2. 민담의 분류(상상력이 어떻게 발휘되는가에 따라)

1) 환상적 민담

- 환상이 개입하여 현실과 비현실이 한데 어우러지는 이야기(초월적 존재의 등장,
이계異界여행, 인간↔동물의 변신). <나무꾼과 선녀>, <우렁각시>.
- 환상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민중의 소망을 드러내고, 지배계층의 횡포와 그에 저항하
고자 했던 현실적 삶의 단면을 우의적으로 표현. 민중의 낙관론 반영.

2) 희극적 민담

- 흥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인간 및 그들의 삶을 희극적으로 변형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
기(소화笑話). <바보 이야기>, <피쟁이 이야기>.
- 특히 남을 교묘하게 골려먹는 사람의 이야기는 사회적 관계의 역전을 노리며 모순된 현실을
비판. 금기시한 성性を 노출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육담肉談도 이에 속함.

◎ <바보신랑>

옛날에 한 바보가 똑똑한 신부와 결혼하였다. 하루는 처남이 온다고 하니, 신부가 신랑의 성기에 끈
을 매달아놓고 부엌에서 한 번 흔들면 “부모님은 안녕하시나?”, 두 번 흔들면 “집안 식구들은 잘 있
고?”, 세 번 흔들면 “집이나 담장은 문제가 없고?”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처남이 도착하여 신랑을
만나니 신랑은 신부가 끈을 흔드는 대로 잘 대응을 했다. 그런데, 신부가 고추장을 가지러 장독대에
간 사이 강아지가 그 끈을 물고 흔들었다. 그러자 바보신랑은 끈이 흔들리는 대로 같은 말을 되풀이
하였다. 처남은 자형이 미친 줄 알고 쏘살같이 집으로 도망을 쳤다.

3) 사실적 민담

- 상상력이 현실에 의해 제어되어 현실적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서사를 전개하는 이야기.
<백정의 양반행세>, <시어머니 길들이기>

◎ 백정의 양반행세

한 백정이 서울에서 부자로 살았다. 이웃의 이판서가 그를 그를 경주로 보내 자기와 사촌간이라 속이고 양반행세를 하며 살게 해 주었다. 이판서의 큰아들이 관직을 받고 경주로 갔다가 그 백정을 만나 당숙 대접을 하며 절까지 하였다. 그 후에 큰아들이 서울로 돌아와 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 동생은 백정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경주로 내려갔다. 형은 미리 백정에게 사람을 보내 동생이 방문할 것임을 알려주었는데, 백정은 그 동생을 정신병자로 취급하여 침을 놓고 광에 가두어 굶겼다. 동생은 견디다 못해 백정을 양반으로 인정했으며, 그 대가로 백정에게 많은 돈을 받았다.

- 운명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거나 변화하는 시대상을 사실적으로 다룬 이야기가 많아 조선후기에 크게 유행한 것으로 보임.

3. 민담의 특성

1) 일상성과 보편성

- 민담은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어났을 법하거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부귀·장수·행복·애정 성취)를 다양한 상상을 통해 보여줌.
- 민담의 주인공은 주변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인물이거나 현실적인 결핍을 가진 인물이지만 힘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여 낙관론, 반천문명적 세계관 지향.

2) 교훈성과 도덕성

- 민담의 주인공이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은 권선징악적 의도를 강하게 내포

4. 민담의 구조

1) 순차적 구조

- 서사요소 간의 유기적인 짜임을 강조하는 것. 주인공이 지닌 결핍 요소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전개하거나, 특정 금기의 설정과 그 금기를 위반한 결과로 사건 전개.

2) 대립적(병렬적) 구조

- 서사적 순서와는 상관없이 이야기 바탕에 깔려 있는 대립적 요소(생사生死·선악·화복禍福·남여·귀천貴賤)가 형성하는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이야기가 전개.
- * 민담은 순차적 구조와 대립적 구조가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저에 깔린 대립적 요소가 서사진행과 맞물려 구조화. 이를 통해 흥미를 불러오고 삶의 가치와 의미가 함께 각인되게 서사를 배치(21쪽의 <구렁덩덩신선비> 참고).

5. 민담의 의의

- 민담에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꿈과 소망이 투영되어 있고, 꿈과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됨. 따라서 민담은 흥미성·보편성을 추구했던 이야기이자 인간의 삶과 꿈을 다루는 이야기.

㉔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는 이야기

- 오늘날 설화 속 다양한 이야기는 공연예술(영화·드라마·뮤지컬), 게임 속 캐릭터, 지역 축제의 형태로 수용되고 재창조되고 있음. 대표적인 예가 <여우(구미호)이야기>.
- 여우는 흔히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하며 비정상적인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을 지닌 존재로 묘사. 문헌에 등장하는 평가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모두 지님

1. 중국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 반영된 구미호

- 1) 「남산경南山經」: 생김새가 여우 같은데 아홉 개의 꼬리가 있으며, 그 소리는 마치 어린애 같고 사람을 잘 잡아 먹는다.(부정)
- 2) 「대항동경大荒東經」: 세상이 태평하면 출현하여 상서로움을 보인다.(긍정)

2. 한국 문헌 속의 여우 이미지

- 1) 『삼국사기』, <온달>: 온달이 평강공주를 보고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일 것이라며 도망
- 2) 『삼국유사』
 - ①<진성여왕 거타지>: 중의 모습으로 변해 용왕의 간을 탐하는 늙은 여우를 활로 쏘아 죽임
 - ②<원광서학圓光西學>: 원광이 삼기산三岐山에 들어가 수행할 때 만난 신이 삼천살 먹은 늙은 여우
 - ③<태종춘추공>: 의자왕 때 흰 여우 한 마리가 궁궐로 돌아와 백제의 멸망을 예고.

3. 구비설화 속의 여우 이미지

- 1) <여우구슬>(24쪽 예문 참고)
 -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처녀로 둔갑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마성적 존재로 그려짐.
- 2) <구미호를 퇴치한 강감찬>(26쪽 설명)
 - 구미호가 남자와 관계를 맺어 태어난 강감찬이 사람으로 둔갑한 이물異物을 알아보고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 3) <백여우가 고려가 망할 것을 알고 점을 쳐서 모아둔 돈을 조선 건국의 자금으로 사용.>
- 4) <한시漢詩로 구미호를 알아낸 처녀>(26쪽 설명)
 - 신부가 신랑의 모습으로 바뀐 구미호에게 한시를 지어 나머지 글귀를 완성하라고 한 뒤 고깃국을 쏘아 사냥개가 물도록 유도.

무전취호원우래 無田驚鵲願雨來 / 불식두견한정소 不食杜鵑恨鼎少

*구미호를 신성과 마성으로 나누는 기준은 인간세계의 질서 유지. 철저히 인간 중심적.

4. 현대 문화콘텐츠에서 재창조된 여우

- 꼬리 아홉 개, 여우구슬을 중요 서사 장치로 활용하고, 인간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동일.
- 인간을 희생시켜야 인간이 된다는 설정 → 남편(아내)과 3년을 무사히 보내면 됨.
-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캐릭터(모성애·효심·우정)이거나 신성성을 이어 산신山神으로 표현.
- 삶의 목표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
- 과거의 인간중심적 사고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으로,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려는 사회적·시대적 지향점의 변화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

5. 설화의 의의

- 설화는 화석이 되어 버린 옛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주되고 새롭게 해석되며 현재에도 계속 살아 숨 쉬는 이야기.